

기본 + 심화	과목명 국어	담당 이윤주 교수님	규범 복습 TEST 3
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문제 1. 한글 맞춤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잘못된 것은?

- ① 질문 : ‘피자집’과 ‘피잣집’ 중 어느 것이 옳은 표기입니까?

답변 : ‘피자집’으로 써야 합니다.

- ② 질문 : ‘반진고리’와 ‘바느질고리’ 중 어느 것이 옳은 표기입니까?

답변 : 끝소리가 ‘ㄹ’인 말과 땀말이 어울릴 적에 ‘ㄹ’ 소리가 ‘ㄷ’ 소리로 나는 것은 ‘ㄷ’으로 적기 때문에 ‘반진고리’로 써야 합니다.

- ③ 질문 : ‘펴웠습니다’와 ‘펴했습니다’ 중 어느 것이 옳은 표기입니까?

답변 : ‘펴렇-’은 어간과 어미가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입니다. 따라서 ‘펴려- + -이서’의 구성으로 활용하여 ‘펴혔습니다’로 표기해야 합니다.

- ④ 질문 : ‘연리율’과 ‘연이율’ 중 어느 것이 옳은 표기입니까?

답변 : ‘리(利)’가 2음절에 왔으므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‘연리율’로 써야 합니다.

문제 2. 다음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 규정 중에서 ‘다달이’로 표기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으로 알맞은 것은?

⑦ (제19항) ‘어간에 '-이'나 '-음/ㅁ'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'-이'나 '-히'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.

⑧ (제20항) 명사 뒤에 '-이'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.

⑨ (제21항)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.

⑩ (제28항) 끝소리가 ‘ㄹ’인 말과 땀말이 어울릴 적에 ‘ㄹ’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.

⑪ (제51항)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‘이’로만 나는 것은 ‘-이’로 적고, ‘히’로만 나거나 ‘이’나 ‘히’로 나는 것은 ‘-히’로 적는다.

- ① ⑦, ⑧

- ② ⑨, ⑩

- ③ ⑪, ⑫

- ④ ⑬, ⑭

문제 3. <보기>의 ‘준말’ 규정을 참조하였을 때, [㉠]~[㉡]에 들어갈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[제5절 준말]

(제38항) ‘ㅏ, ㅗ, ㅜ, ㅡ’ 뒤에 '-이어'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.

본말	준말	본말	준말
싸이어	[㉠]	뜨이어	[㉡]
누이어	[㉢]	쓰이어	쓰여, 쓰여

(제39항) 어미 '-지' 뒤에 '않-'이 어울려 '-잖-'이 될 적과 '-하지' 뒤에 '않-'이 어울려 '-찮-'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.

본말	준말	본말	준말
그렇지 않은	[㉡]	만만하지 않다	만만찮다
적지 않은	적잖은	변변하지 않다	변변찮다

- ① ㉠ - 싸여 ② ㉡ - 뛰어, 띠여
 ③ ㉢ - 누어, 누여 ④ ㉣ - 그렇잖은

문제 4. <보기>의 ㉠~㉡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어릴 적, 우리 집안은 너무 가난하여 ㉠ 삯월세를 살았다. 그래도 ㉡ 고삿에서 아이들과 뛰어 놀 수 있어 행복했다. 때로는 ㉢ 숯기와를 주워 아이들과 비석치기를 하기도 했다. 그러다가 ㉣ 지리해지면 말뚝박기로 놀이 종목을 바꾸곤 했다.

- ① ㉠의 ‘삯월세’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 사용되는 말이니까 표준어인 ‘사글세’로 고쳐야겠어.
 ② ㉡은 문맥상 ‘마을의 좁은 골목길’을 뜻하므로 ‘고샅’으로 고쳐야겠어.
 ③ ㉢은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므로 ‘수키와’로 고쳐야겠어.
 ④ ㉣은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이므로 고쳐 쓸 필요가 없어.

문제 5. 다음 사투리를 그 뜻을 참고하여 표준어로 고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사투리	의미	표준어
① 씨래기	말린 무청	시래기
② 생추	국화과의 일년초로 잎을 먹을 수 있어 채소로 널리 재배됨.	상치